월요논단

새롭게 보이는 제주근대건축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수년 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에서는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잊혀져 왔던 건축인들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인물과 건축자료를 수집해 자료화하는 작업이 이른바 아카이브 작업이다. 수년에 걸쳐 아카이브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눈여겨보지 못했던 근대시기의 제주건축가와 그들의 작품에 대해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는 건축 선배들을 잘 알지 못했고 더욱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부끄러움이 앞선다.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전시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다면 기쁜 일이다. 2025년 연말 전시회는 2세대 건축가를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전시회를 찾은 유족들이 방명록에 남긴 감사의 글을 위안으로 삼고 싶다.

다행스럽게도 수년 전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축투어 프로그램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건축으로 보는 제주의 근현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자연스럽게 제주 근대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이 소개되기 때문이다. 사실 건축과 사회 변화를 별개로 볼 수 없다. 건축가는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세대를 이론적으로 구분한다면 제주 건축의 1세대는 일제강점기, 이종문화가 이식되기 시작했던 시기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건축적 활동을 할 순 없었지만 자의든 타의든 일본건축가에 의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기술로 축조된 건축물을 제주사회에 선보였기 때문이다.

제주 건축의 2세대는 일제강점기에서 체계적인 건축교육을 받고 광복 이후 1960년대까지 활동을 했던 건축가들로, 일본 건축 교육체계 속에서 교육받고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광복 이후에는 독립 국가에서 독자적인 건축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시대 상황을 극복하려 했던 건축가들이다. 제주 건축의 3세대는 2세대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도 정규 4년제 대학에서 체계적인 건축교육을 받고 1970년대 고도성장의 사회발전기에 왕성한 활동을 했던 건축가들이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 4세대와 5세대로 이어지며 외국과의 교류 등 제주 건축의 외연적 확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중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건축은 협회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제주미래건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와 현재의 바탕 위에 미래의 방향성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시적인 시각의 틀에서 제주 건축을 들여다보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당국은 제주건축가회와 함께 제주근현대건축의 아카이브 전시를 통한 건축의 대중화·보편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장기적으로는 제주건축관 건립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설

관광객 100만명 조기 돌파… 연중 관리해야

제주 관광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산뜻한 출발을 해서다. 올해 1월 1일부터 28일까지 제주 방문객은 101만742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 늘었다. 내국인 관광객은 88만9850명, 외국인 관광객은 12만757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1%, 23.4% 증가했다. 관광객 100만명 돌파일은 2023년 1월 30일과 2024년 1월 29일, 지난해 2월 1일과 비교할 때 조기에 달성한 것이다.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이 늘고 소규모 자유여행이 확산한 영향이 컸다. 특히 2월에는 닷새간의 설 연휴가 있어 1분기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국인 관광시장은 제주관광의 기본 축인 만큼 제주도는 안정적인 수요관리와 재방문 유도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6 더-제주 포시즌스(Four Seasons)'를 메인 테마로 체류·일상형 관광 콘텐츠를 시기별로 배치해 연중 고른 방문 흐름을 유도한다.

관광객 100만명 조기 달성은 올 관광시장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특정시기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에서 탈피해 연중 고른 관광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객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또 양적 관광에서 벗어나 질적 관광을 도모해야 한다. 단체 위주 대량 유치보다는 프리미엄 관광과 고부가 시장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고품격 콘텐츠로 관광소비의 질을 높여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

청년은 떠나는데, 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나

제주에서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20대를 중심으로 한 인구 순유출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국가데이처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5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는 7만7588명이 전입한 반면 8만1861명이 전출해 4273명이 순유출됐다. 순유출률은 -0.6%로, 광주 -1.0%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제주지역 순유출 규모는 2023년 -1687명, 2024년 -3361명에 이어 지난해 -4273명으로 커지며 3년 연속 확대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가운데 20대는 -2198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부족한 반면 주거비 부담은 수도권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제주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이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청년층 이탈이 계속되는 데에는 제주도정의 책임도 적지 않다. 도정은 17만 제주 청년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춘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러나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 과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제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청년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은 과감히 개선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도 없다. 제주도정은 청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말이 아닌 결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

열린마당

기후위기 대응, 주민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다

고 기 봉
행정안전부 생활 공감 정책 참여단

기후위기는 이제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제주의 현재다. 잦아진 집중호우와 침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농·어업 생산성 저하는 도민의 일상과 생계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기후위기의 영향이 지역과 계층, 생활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현장의 불편과 위험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지금 제주도정에 필요한 것은 '주민참여 확대'라는 정책 전환이다.

정책은 현장을 알아야 하고, 행정은 생활을 이해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활 공감정책 참여단'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마을별 반복 침수 구간, 폭염에 취약한 노인·농작업자 보호 대책,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유형, 쓰레기·재활용 처리의 계절별 문제 등은 주민이 가장 먼저 체감한다. 이러한 정보는 탁상계획이 아닌 현장 중심 정책 설계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제주에는 마을 공동체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다. 참여 과정 자체가 기후 인식 교육이자 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방향은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활 속 공감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주민참여가 강화될 때, 제주의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 될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국가 지원을"

혼디쉼팡서 현장 간담회

○…제주도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이동노동자 쉼터 '제주 혼디쉼팡 연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도내 택배·배달·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협력에 한뜻.

이날 간담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쉼터를 4개에서 7개로 확장할 때 전액 지방비로 부담했는데, 향후 추가 설치 과정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

한편 간담회에 앞서 김 장관과 오 지사는 지난해 새벽 배송 업무 중 사망한 오승용 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 진선희기자

외국인 고용 농가 인권교육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 농가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안내 및 노무·인권교육'을 이달 6일 진행할 예정.

교육은 본격적인 근로에 앞서 고용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 방법, 근로시간과 농업분야 특례 규정,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진행.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근로 조건과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해 인권 침해 없는 올바른 고용 문화가 지역 농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문미숙기자

부 고

김해김씨 삼현파 복모공종친회 前회장 김공 관식(향년 93세)께서 서기 2026년 1월 31일 17시경 노환으로 영면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6년 2월 2일(월요일)
▶발인일시 : 2026년 2월 3일(화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제3분향실
▶장 지 : 영평동 선영

배우자 김신형
아 들 김창현 며느리 한효주
창하 곽현지
딸 김수연 사 위 좌태훈
선주 고종권(故)

김해김씨 삼현파 복모공종친회
회장 김 태 환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3차)

제주도련일동지역주택조합은 2026년 01월 25일 조합총회에서 조합해산 및 정산결의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법령에따라 조합청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를 게재 다음 날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본 법인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2년 02일
제주도련일동지역주택조합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돈내길8, 405호 (이도일동, 이도센트레시티)
업무대행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72, 3층 (오라삼동, 세계빌딩)
청산인 : 고 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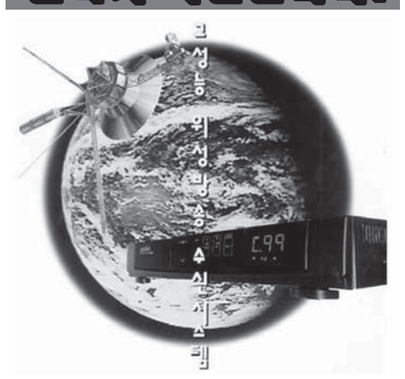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ㅇ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ㅇ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ㅇ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